

## 12. 마루 틈새에 남아있는 부록빼기 그루팥 두 알

나는 식물이 인간보다 훨씬 진화된 생물이라고 믿고 있다. 그것은 하느님도 알고 있었는지 모른다. 하느님이 지구의 대홍수를 예언하고 후 세계를 다시 건설하기 위하여 노아를 시켜 방주를 만들게 하여 방주에 사람들을 비롯한 동물들을 피신시킬 때 씨앗은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왜일까? 하느님도 씨앗은 그 홍수에서 버텨낼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오만한 인간들은 자신들이 만물의 영장인 줄 알고 힘을 과시하지만, 더 큰 힘이 오면 꼼짝없이 당하고 만다. 요즘 하찮다고 여겼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에 전전긍긍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 자연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 생각해볼 때라고 본다.

식물은 번식, 영양 섭취 등등의 면에서 보면 인간보다 보수적이지만, 훨씬 논리적이다. 진보가 항상 우월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식물은 인간보다 훨씬 진화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혹자는 그렇지 않다는 논리로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과 교감, 그에 따른 영향은 식물에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라고 말하곤 한다. 이기(理氣)를 논하되 칠정(七情)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식물의 세계이니 이택상주麗澤相注<sup>1)</sup>니 동주공재 同舟恭齋<sup>2)</sup>라는 말은 인간만이 갖는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식물도 서로 공감하는 식물끼리 모이면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하듯 마법처럼 동주공재를 한다. 당근과 양파처럼 공감하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서로 맛을 향상하거나, 콩과 옥수수처럼 질소질과 미생물을 주고받으면서 상호 보완하는가 하면, 합이 잘 맞는 무사처럼 친구가 옆에 있으면 일당백의 전투를 하듯이 고추와 들깨, 당근과 골파는 식물을 향해 오는 해충들을 물리치는 데 힘을 합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옥수수와 감자, 콩과 허브, 바질과 토마토 등이 함께 별이고 있는 신비한 힘을 식물학자 로렌인 해리슨은 ‘공감의 마법’이라 부른다.

하긴 식물에 이런 ‘공감의 마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해서 놀랄 일은 아니다. 이미 우리 선조들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이를 찾아냈다. 바로 부록배기다. 인간이 만들면 과학이요, 자연이 만들면 우연이라고 우기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창시자요 라며 소리치며 공생농법이란 거창한 이름까지 붙이면서 포장하고 있지만, 그 뿐리는 모두 부록배기에 있다.

이창신 농부님, 이번 수집 여행에서 만난 분이다.

그분과는 참으로 인연이 기이하다. 수집하다 보면 우연히 자연과 조화로울 때가 있다. 비가 오다가도 도착하면 하늘이 갠다든지, 추운 겨울날 눈발을 걱정하고 집을 떠났는데, 그날이 겨울철 온도가 가장 높다든지, 아니면 주소도 없이 일단 가보자고 떠난 길이었는데, 우연히 도착한 곳이 찾던 그곳이더라는 던 지… 이번에 이창신 선생 댁을 찾은 것도 그런 경우다.

단순히 마을 이름만 알고 갔는데, 막상 가 보니 공장지대로 변해가고 오히려 농촌이 공장 가운데 끼어있는 모습을 한 곳, 누가 농사를 짓는지 공장을 다니는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다. 이미 그곳은 시골이 아니라 이미 도시화가 반은 돼 있어 길은 복잡하고 마을 사람들은 이미 떠나 농사짓는 사람조차 찾기 힘들었다. 그래서 무작정 차를 주차장이 있는 앞마당에 세웠다.

그런데 웬일. 그 집이 바로 이창신 할아버지의 집이었다.

오래된 집이었다. 대들보 상량 보에 보니 동치 2년이라 했으니 1886년도에 지은 집이다. 청나라 연호를 쓴 집이 흔하지 않은데, 아마 구한말에 청나라와 깊은 인연이 있던 집인 모양이

1) 두 연못이 이어져 있으면 서로 물을 대주어 어느 한쪽이 마를 일이 없다는 인간만이 갖는 상호부조를 뜻함

2)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뜻으로 힘을 합하여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뜻임

었다. 할아버지 얘기대로라면 내 건너편 오두막집에 살았는데, 이 집이 탐이 나서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집이 나왔다길래 두말하지 않고 집을 샀다는 것이다.

씨앗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런 집을 찾는다. 나는 꽤 보수적인 집안이 토종을 보존하고 있다고 다른 글에서 밝힌 바 있다. 돌기와 지붕으로 지은 □자 집이었다. 지을 당시에는 위세가 대단했던 지주의 집이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위채의 돌기와는 건축업자가 집수리를 빌미로 뜯어갔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래채의 돌기와는 지금도 새로 이엉을 한 힘석지붕 밑에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다. 마루는 나무판 틀로 맞춰 끼운 우물(井字)마루였다. 끼워서 맞춘 우물마루 특성상 틈이 벌어졌지만, 오래된 티가 나는 마루였다. 한때 가정에서 만드는 밀주를 금지한 적이 있었는데 술도가지를 감추는 데는 우물마루 밑이 제격이었다. 자식들이 보일러를 깔자며 뜯어내려 할 때도 지킨 마루라 했다. 마루 밑에는 술도가를 묻던 자리가 아직도 웅푹 패여 있었다.

우리가 할아버지를 찾은 이유는 바로 소위 공생농법라 불리는 부룩배기를 늦게까지 해 오신 분이기 때문이었다. 이분의 부룩배기란 두 가지 형태로 농사를 지었다. 하나는 서로 보완 또는 지지하는 작물을 토대로 섞어 짓는 농사법이다. 예를 들어 옥수수는 콩의 뿌리혹박테리아에서 주는 질소를 받아먹고, 콩은 옥수수의 페니실리움이라는 곰팡이라는 미생물을 이용해 자라는 방식이다.

또 하나는 간작 형태로 작물을 심은 곳에 간격을 이용하여 서로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씨를 뿌려 농사를 짓는 방법이다. 서리태 콩을 심고 골에 팥을 뿌리니 그 팥은 골팥이 되고, 조를 심고 그사이에 팥을 심으니 그 팥은 그루팥이 되는 것이다.

사실 부룩배기라는 공생 농법은 예전에 땅은 적고, 생산량은 늘려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 농민이 해오던 궁핍에서 찾은 농사법이었다. 그 오래된 궁핍에서 나온 지혜, 서로 어울리며 자라는 작물들을 찾아냈고, 그것이 조금이라고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창신 어르신은 바로 그런 농법을 오랫동안 해 오신 분이다. 땅이 적은 것도 아니었고, 그분이 주로 해 온 부룩배기는 그루팥과 조, 골팥과 서리태의 공생 농법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갔을 때는 이창신 어르신은 이미 농사를 놓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허리를 다친 데다가 이미 늙어 농사를 짓기 어려운지 할머니의 수발만 받고 있었다. 할머니가 우리를 맞이했다. 우리는 슬그머니 음료수를 내려놓고 할아버지를 찾았다.

농사를 짓지 못한 것도 속이 상할 판인데 웬 놈이 찾아와서 씨를 내놓으란다. 그분 입장에서 보면 속이 상하고 기가 막힐 일이다. 염장을 지르는 짓일 게다. 아직까지 할아버지는 방안에서도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다. 어느 밭에는 무엇을 심고, 어느 땅에는 무엇을 심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자랐는지 다 계산하고 있을 정도였다.

할머니는 옆에서 거들면서도 계속 한숨만 내쉰다. 누구한테 도조로 준 밭은 지금 무엇이 심어졌고, 등 너머 밭에다가는 무엇을 심었는데 형편이 없다는 것이다. 어느 집은 풀이 수북하고, 어느 밭은 벌레들이 판을 쳐서 남은 곡식이 없다고 투덜댔다. 소용없는 짓인지 알지만, 당장이라도 그 밭을 거둬 직접 심고 싶은 심정이라 했다.

우리는 어른들과 대화를 시작할 때 말문이 막히면 어머니를 곧잘 판다. 우리 어머니 나이가 백 살을 넘긴 지금도 씨를 못 놓고 집착한다고 푸념하면 동시대 분들은 모두 어머니를 이해한다. 분명 옛 분들에게는 씨를 놓쳐서는 안 될 동병상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할머니가 동조하며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주섬주섬 작은 보따리 하나를 꺼내 들고나오는데, 서리태, 밤콩, 종콩 등 토종 콩 종류들이다. 반갑다. 모두 씨앗 때가 거뭇거뭇 반들거리는 게 케케묵은 패트 병 속에 그분들의 아쉬움 만큼 종류별로 꽉 들어차 있었다.

-이젠 틀렸지!

한숨이 깊었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도 깊어져 갔다. 주로 탄식과 안타까움이 오갔다. 그러면서 얘기가 깊어질수록 할머니가 이 광 저 광에서 찾아내 오는 토종작물들… . 여기저기에 다양하게 두었다. 부룩배기 작물은 또 따로 보관하고 계셨다. 혹시 다시 농사지을지 몰라서, 또는 도조 밭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밭을 내놓으면 지을지 몰라서 두었던 씨종자였다. 물론 헛된 꿈이었다. 농사꾼은 허리가 부서지고 다리가 절룩거려도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희망 속에 헛된 꿈을 꾸며 늙는다.

그렇게 이태가 지났다. 이제는 할아버지 허리 상태가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으니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다시 심을 일도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토종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사람들이 왔으니 안심이 된다며 비록 쓸데없지만, 씨앗 보따리가 아까워 버리지 못했는데 떠맡길 사람이 왔으니 잘됐다는 듯이 우리에게 내놓고 계셨다.

그런데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그루팥과 조였다. 다행히 조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 할머니는 우리가 박물관 한다니까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옛날 농기구며, 생활 도구를 챙겨주시면서 박물관에 놓으란다. 그중에 소코뚜레가 있었는데, 그 집 외양간 기둥에 구멍이 커다랗게 하나 뚫린 곳이 있어 용도를 물어보니 그것은 마을 대동놀이 할 때 쓰는 동아줄 매는 구멍이란다. 그 기둥에 코뚜레와 함께 조가 배배 비틀어진 채 걸려 있었다.

그러나 끝내 팥은 찾지 못했다.

어딘가 분명히 두었는데 할아버지가 쓰러지고 난 뒤 끝내 이태가 지났으니 찾지 못하고 있었다. 광을 뒤지고 다락을 뒤지고 씨앗 보따리를 다 풀어놔도 그루팥은 보이지 않았다.

분명 어딘가 잘 두었으나 찾지 못해 미안해하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증명해내지 못한 할아버지의 진한 아쉬움 때문에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있다가 포기를 하고 인사를 하고 나왔다. 그리고 대문을 나서는데,

-어! 여기 있네.

작별 인사가 길어 늦게 나오던 아내가 팥을 발견하고는 이건 무슨 팥이냐고 묻자 할아버지가 급하게 소리쳤다.

아직도 그분들의 손때가 남아있는 우물마루 틈새로 보이는 그루팥 두어 알이 이제 찾았느냐는 듯이 볼 부은 머퉁이처럼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태 전에 씨를 가리다가 마루 틈새로 굴러 들어간 그루팥이었다. 할아버지는 나무젓가락을 빼개더니 살짝 텡겨 팥을 빼냈다.

- 에고, 요놈이 그래도 그냥 없어지긴 서운했나베. 그려, 우리하고 지낸 세월이 얼맨디.

그제야 할아버지는 자신이 들려줄 이야기가 사실임을 입증했다는 듯이 할머니가 타 온 커피에 입을 댔다.

- 그때만 해도 그랬지.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 돼기밭을 일궜지. 팥 정신이 있었나?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쪽금씩 팔기 시작한 거. 보따리다 이고 나가 팔곤 했지. 애덜 학교는 보내야 했으니까 말야. 배워야 산다고 생각들했지. 우덜은 핵교에 원이 든 사람들이지. 서당 너 머로 귀동냥이라도 하면 견방지라고 혼났응께. 그렇게라도 팔지 않으면 기성회비를 어떻게 마련하나? 그러다가 지금은 팔지 않으면 뭇사니까 파는 밭하고 멱이 하는 밭을 나누기 시작했지. 파는 거는 보기도 좋아야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씨 종자를 사다가 심었고, 우리가 먹을 거는 그래도 먹던 감량이 있응께 그냥 토종을 심은 거지. 그게 점점 파는 양이 많아지다 보니 점점 밭이 좁아진 거지. 그 좁은 밭에 멱이 할 식량을 다 했어야 했으니 오죽했겠어? 그러나 빽빽하게 심었지. 그냥 그걸 우리는 부룩배기라고 불렸어. 토종이 잘 견디고 지들끼리 잘 돋거든. 인생이 뭐 있나.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부룩빼기 하면서 사는 거지. 마누라도 그

렁고, 이웃들도 그렇고… 땅이 좁을수록 부룩배기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붙여놓으면 부룩배기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뺏으려고 싸우고 지랄이지.